

† 마데테스는 제자라는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 않으며 지혜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청신 차려 껴어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생명의
길로 가기만 소망합니다.



청신 차려 껴어서 신자 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회합니다.

인생

신윤식

인생 그것 참

살면 살수록 무겁고
알면 알수록 어려워서

할 말은 줄어 들고
내 모습은 부끄럽다.

마지막 끝에 서면
가벼워지고
속 시원히 알게 될는지

어쨌든 그때까지
살아볼 일이다

산다는 것
지금이 전부는 아니니

선불리 실망하지 말고
행로나 제대로 갈 일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11.27

발행호수 제19권 44호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기는 배신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것 중에 하나가 배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

고 답을 내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말한 대로 인류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라고 할 만큼 배신으로 가득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고 신하가 왕을 배신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여 흘러온 역사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도 어떤 사람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며 신의를 지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도 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겼기에 신의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배신을 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킬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떤 장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항상 내게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쪽에 서는 것이 내게 큰 불리함과 불이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안다면 멀리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서로를 신뢰하지 말고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에 대해 신뢰가 간다면 신뢰하면 되고 인간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로 구축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내 편은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나로부터 등을 돌린다고 해도 분노와 섭섭함 보다는 그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

주일오전설교
마 26:31-35

베드로의
장담

함과 함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인간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문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굳게 맹세하고 장담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굳건한 장담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도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또 다시 장담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님이 붙들려 가실 때 제자들은 도망을 치고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문제에서는 설불리 장담하지 말고 신중해라는 교훈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이 것처럼 뻔히 보이는 결론을 가지고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뻔한 결론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밤 네가 나를 버린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배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밤 안으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형편이나 분위기라면 얼마든지 배신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붙들려 가는 심각하고 두려운 상황이 아니어서 단지 자신의 심정만으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장담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불리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다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 나를 버린다'는 말씀 또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장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는 분으로 장담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서 다만 자기 심정으로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들이 단지 누구 말이 맞으며 누가 더 인간에 대해 잘 아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31절 뒷부분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속 13:7절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도망치고 흩어질 것임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붙들려 죽게 됨으로 인해서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의지하던 양 떼들이 흩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목자가 붙들려 죽는 현실이 양 떼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양 떼들은 위험의 형편으로부터 도망쳐 각자 자기 살길을 찾아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다가올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른 채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심과 의지와 자존심과 자신들이 메시아로 믿고 있는 분을 버릴 수 없다는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의리로 뚝뚝 뭉쳐 있는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는 자신을 향한 신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이 같은 자기 신념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양 떼는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참된 주의 나라가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속 13:7절 하반절에 보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들은 흩어진 양을 뜻합니다. 이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리우신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속 13:8,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의 이는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속 13:8,9)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고 양이 흩어지면 하나님이 삼분의 일을 남기실 것이고 그들을 부르셔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예전에는 목자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고 흩어지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불 가운데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자가 되어 부름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으로 여기시며 백성된 자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믿음의 길로만 가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그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처음 부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도 자신들의 의지였고 앞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는 자신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너져야 할 육신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 나라는 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믿는 나의 세계일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극히 인간적인 용어들이 믿음으로 가장되어 남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밀어 붙이는 것이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은 주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서 새롭게 그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주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주의 나라는 자기

의 신념과 자존심과 힘이 무너진 나라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존심과 힘으로는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음을 알기에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루심과 일하심을 믿는 나라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주의 나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라이고 죽음의 권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나라입니다. 신자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갈릴리에서 처음 부름을 입은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을 입은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다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의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 힘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심히 악한 존재들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흠어지는 것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한 새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주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내게서 나오는 것은 배신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의 증거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가 늘 자신을 붙드시고 생명의 주님과 관계에 있게 하심을 믿기에 어떤 형편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홀로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관리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믿을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든든하게 할 것입니다.

교 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은 아마 봉사일 것입니다. 봉사를 신앙의 척도요 열매요 증거로 말하면서 봉사가 없는 신자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봉사에 열심이 있는 신자는 수준 높은 신앙으로 인정하면서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는

말로 칭찬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신자들 사이에 봉사가 하나의 경쟁으로 자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몸과 돈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신자들은 은근히 뒷전으로 밀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봉사가 무엇일까요? 현대 교회가 주로 가르치고 요구하는 봉사는 교회와 사회를 위한 몸의 헌신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위해 수고하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 청소하고 밥을 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봉사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봉사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자신의 결단과 의지와 뜻만 있으면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 헌신할 수 있고 돈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나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도 가정일 보다는 교회 일을 우선하며 교회가 원하는 헌신과 충성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봉사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가 말하는 봉사는 심히 왜곡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는 봉사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봉사가 하나님께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린 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봉사에 대한 오해며 왜곡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교인들을 봉사에 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한 그러한 교인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결국 교인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하고 헌신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

주일오후설교

벧전 4:7-11

교회와 봉사

(교회14강 11.13 설교)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신자에게 서로 봉사하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은사를 받은 신자가 봉사에 게으르다면 그것은 곧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악한 종과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신자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악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일에 맹목적인 열심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의할 것은 7절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만물의 마지막, 즉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8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9절)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10절). 즉 사랑, 대접, 봉사 이 모든 것이 종말과 연결되어 신자의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종말을 말하면서 기도와 함께 사랑과 대접과 봉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일까요? 만물의 마지막은 세상의 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끝도 의미합니다. 즉 신자가 세상의 종말을 말한다면 자신의 종말까지 포함해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육체의 남은 시간을 알려 주셨다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남은 때가 수십 년인 사람들은 그런대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 아니 몇 달 남은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쉬울 것이고 인생이 끝난다는 두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부요에 집착을 할까요? 인생이 끝나면 세상에서의 영광과 부요도 다 헛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 육체의 남은 때가 도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오

늘을 세상의 영광과 부를 위해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알지 못함으로써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즉 종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오로지 자기 육체를 위한 방향으로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이방인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의 봉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사람의 봉사는 비록 타인을 돕고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자기 영광과 자기만족 자기 보람을 의식한 봉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봉사를 명목으로 자기 신앙을 증거하려고 하고 이로 인해서 봉사가 경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말의 때에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더욱 더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로 하는 말일까요?

종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행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행해질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생명의 관계에 있게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에서 구원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생명의 관계에 있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만 있을 뿐이지 인간의 것은 그 무엇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사는 신자는 자연히 나를 부르시고 생명의 관계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할 뿐이지 자신의 열심과 봉사, 또는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는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담은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으며 신앙 또한 자신의 봉사를 수단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봉사가 하나님과의 생명에 관계에 있

게 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생각한다면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백성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생명에 속하게 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봉사는 이 사랑을 토대로 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봉사를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합니다. 청지기가 하나님께 맡은 것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인 것처럼 신자 역시 하나님께 맡은 것을 나눠주는 역할자입니다. 이것이 봉사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봉사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서 활동하신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는 것은 육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의미고, 따라서 우리가 얼마를 살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육체를 주관하시는 분의 소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내 힘으로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삶의 길에서만 참된 봉사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는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해도 자기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로 인한 경쟁도 없게 됩니다. 봉사로 인한 우월감도 없게 됩니다. 봉사를 기준으로 나와 타인을 판단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힘쓸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옥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자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살게 하시는 분도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수요일설교
렘 2:26-37

누가
구원하실까
(8장 11.2일 설교)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접고 대신 우리의 뜻에 동참하시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모호해지는 것은 기도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주시는 분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모든 일을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고 타인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둑의 속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6절에 보면 “**도적이 붙들려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당하는 수치를 도적이 붙들려 당하는 수치에 빚대어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도적으로 보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도적이 붙들려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수치를 당한다고 하십니까?

27절을 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마치 도적질 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섬기는 것이 왜 도적질과 같은 것이 될까요? 이것은 도적질의 속성과 우상을 섬기는 속성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도덕적인 바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그 수대로 기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인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 개인의 소유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자 해서도 안됩니다. 남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갖고자 하는 것도 가나안 땅의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도둑질은 주어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까지 탐을 내며 자

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상숭배 또한 도둑질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탐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당할 수치를 도적이 붙들려 당할 수치와 함께 언급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오직 자기 육신만 의식한 결과입니다. 육신만을 의식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것을 많이 누림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육신을 위한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를 따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신만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도둑질하는 사람의 심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것처럼 우상을 찾다가 환난을 당할 때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28절)라고 조롱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육신을 위해서 수많은 신을 만들어 냈다. 그것처럼 유다도 그들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 환난을 당할 때 그 어떤 신도 그들을 환난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에서의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피할 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문에 환난에서 나를 구원할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소유가 많아진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그 어떤 소유도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분명히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믿는 신자라면 소유의 많음보다는 환난의 때에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분에게 마

음을 두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유의 많음에 복의 의미를 두고 산다면 세상의 마지막, 환난의 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패물을 잊지 못하고 신부가 예복을 잊지 못하는 것은 신앙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신부에게 신앙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이 자기에게 함께 한다는 증표인 패물과 예복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고 누리고자 합니까?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구입니까? 환난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 같은 물음을 던지시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세상의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는 현재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이 큰 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님께 있음을 알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역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결론은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사람만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로 인해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웃고 울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그 심령에 가득한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9장

교 독 : 79(요15장)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433장

성 경 : 마 26:31-35

말 씀 : 베드로의 장담(160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40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3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31장

기 도 : 이옥주 집사

찬 송 : 426장

성 경 : 몬 1:4-7

말 씀 : 교회와 교제(교회1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20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11강)

■ 교회소식 ■

1. 2012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
에 한부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이경숙 집사

내 마음에 드는 교회?

현대 기독교가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의 교회가 많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대안은 교회가 개혁을 하여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면 자연히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이어질 것이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교회 성장의 비결의 하나로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말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큰 함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라는 말이 과연 타당한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규정한다. 인간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한다. 인간에게서 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곧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곱곰이 생각해 보자. 다니고 싶은 교회라는 것은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미 본성이 욕망으로 무장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결국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교회라는 뜻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이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교회를 만들자는 의미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피로써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기쁨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교회가 부패하여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니 교회가 개혁되어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른 사람들의 헛소리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현대 교회의 '교회 성장주의'를 비판하기도 한다. 현대 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교회 성장에 매달리는 것이 교회가 부패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한 '교회성장주의'와 다를 바 없음을 알아야 한다.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들먹이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다니고 싶은 교회로 만들자는 그 말이 교회 성장주의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교회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른 교회가 되고 사회 사업에 힘을 쏟아 선한 평가를 받음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로 만들자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교회는 오로지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으면 된다. 복음의 터 위에 서서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배우고 깨닫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돕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다니고 싶은 교회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교회로 모이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어서 사람이 다니고 싶은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터 위에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터로 하는 것일 뿐이다.